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정부는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우선적으로 정책금융 지원여력을
임계점까지 활용하여 지원을 해왔습니다.

재원확충 없이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지원하며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지난 금요일, 제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 4.7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되었으며

※ `20년말 건전성지표 예상(추경전 → 추경후)

(산은 BIS) 12% 초반 → 13% 수준, (신보 보증배수) 20배 초과 → 14배 수준

3~4월과 같은 위기상황 재연시
즉시 임계점까지 추가 확대할 수 있는
약 70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여력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 지원이 곤란한 취약부문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경제충격으로 인한 취약부문의 부실확대를 방지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2-1.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신속 이행]

정부는 추경안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들을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기반인

①협력업체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완성차업체,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6.29일)과 완성차 업체의 출연 등을 바탕으로 시행준비가 완료된 동반성장펀드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원을 개시하였습니다.

완성차 업체와 신보가 협력하여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상생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도 추경을 통해 재원이 확보(100억원)된 만큼 금주 내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기간산업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기간산업안정기금·은행권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 기존 항공, 해운업 외에 지원대상 추가업종을 지정하는 등 프로그램이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②저신용등급 기업들과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여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는
추경안 통과로 정부 출자금 1조원이 마련된 만큼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7월중에 SPV를 설립하고,
비우량채 발행기업 지원을 개시하겠습니다.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추경안에 반영된 출자금(500억원)을 바탕으로
7월 중순에는 정식접수를 시작하여
Fast-track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⑥ 시장안정화 프로그램들의 경우
충분한 대응여력을 바탕으로
시장안전판(backstop)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채권시장 안정화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5~6월 중 회사채 순발행이 예년수준을 회복하고
금리·스프레드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상황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회사채 일평균 순발행(억원): (3월)△71 (4월) △10 (5월) 2,273 (6월) **2,291**
CP(A1) 금리 : (1.2일) 1.68% → (3월말)2.20% → (6.26일) 1.52% → (7.3일) **1.49%**

기간산업안정기금 역시
자금지원 신청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지원의 방어선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2. 기업 사업구조 개선 활성화]

정부는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어 온 구조적 취약기업들의 경우에는
증자,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정책금융기관들의
연계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재무개선과 사업전환 노력을 이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과 한정된 자원 등을 감안하면
모든 기업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재편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회복은
기업 정상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유효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향후 사업구조 개선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유암코 등 사업구조 개선 전문 플레이어가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재무안정펀드 등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여
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구조 개선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 투자자, 채권금융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지원에 있어 은행이 멈추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도 생태계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IMF*는 코로나19 정책대응과 관련하여
아시아 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자본을 충분히 확충하고
기업 사업구조 개선의 틀을 재정비하고
생존 가능한 기업으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IMF : Reopening Asia: How the right policies can help economic recovery(20.6.30.)

A robust recovery hinges on exiting the current phase of support and transitioning to new policies that help ensure resources are reallocated appropriately beyond the initial focus on preventing bankruptcies of incumbent firms, and thereby strengthen the solvency of firms. For example, flattening the bankruptcy curve by streamlining the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frameworks; ensuring that banks are adequately capitalized; and facilitating equity injections into viable firms and risk capital for new firms.

정부는 경제의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의 금융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